

조기위암 환자에서 수술방법의 차이에 따른 Lymphocyte Subset

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

문형곤, 이영준, 정치영, 주영태, 정은정, 홍순찬, 최상경, 박순태, 하우송

(배경 및 목적) 수술기법과 장비의 발전에 따라 조기 위암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복강경적 술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. 복강경적 수술은 개복적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의 저하 및 빠른 회복과 입원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많지만, 조기위암에서 복강경 수술이 가지는 면역학적 장점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. 따라서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조기위암환자에서 복강경적 수술과 개복적 수술간의 수술 후 면역상태를 lymphocyte subset을 이용해서 비교하였다.

(대상 및 방법) 본 연구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경상대학병원 외과에서 수술을 시행받은 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시행하였다. 조기위암 환자에서 복강경적 수술과 개복적 수술을 무작위적으로 정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7일째 말초혈액에서 lymphocyte subset을 검사하였다. 총 28명의 환자가 복강경적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24명의 환자가 개복술을 시행받았다.

(결과) 복강경적 수술군과 개복술군간의 임상병리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lymphocyte subse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양상태의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. 수술 시간은 복강경군에서 유의하게 길었으며, 수혈이나 수술에 의한 합병증은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복강경군에서 말초혈액 림프구의 수가 개복술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($p < 0.05$), CD3+, CD4+, CD8+, CD16+56+ 림프구의 개수 역시 복강경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. CD 19+ 림프구의 개수는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CD4+/CD8+ 비는 복강경 군에서 높았다.

(결론) 말초혈액의 림프구 분석이 환자의 면역상태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될 수는 없으나 다른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성을 가지며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조기위암에서 복강경적 수술이 전통적 개복술에 비해 말초혈액의 림프구 분석에서 면역학적으로 우월함을 보였다.